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2호 【루계 제25721호】 주체106(2017)년 7월 31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연회 성대히 진행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자주적존엄과 불패의 위용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을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여 7월 30일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연회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 김락겸동지, 김정식동지, 정승일동지, 장창하동지, 전일호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연회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연회참가자들은 주체적로케트공업의 개척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핵무력건설대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추켜들고 전략적핵무력강화의 성스러운 길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움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최후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미제를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에게 철퇴를 안긴 로케트개발자들에게 뜨거운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로케트연구부문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불철주야의 헌신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핵강국건설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을 또다시 안아오시고도 그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안겨주시며 경축공연무대와 성대한 연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연회에서는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만건동지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로케트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련속대성공의 승전포성을 울리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상을 만방에 떨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뜻깊은 축하연에 다시 참석하게 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불과 20여일만에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장쾌한 불뢰성을 또다시 터친것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눈부시게 비약하는 주체적로케트공업의 발전속도와 막강한 잠재력, 영웅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웅변으로 실증한 세계적사변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온 행성이 《화성-14》형 1호기에 의한 충격쇼크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악의 제국, 침략의 원흉의 정수리를 강타한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형언할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사회주의조선을 축으로 한 새로운 세계정치구도를 펼치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여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국방과학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천재적인 예지와 담대한 배짱,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또 하나의 민족사적쾌승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온 나라가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를 경축하여 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도 미국놈들의 승냥이 더 바싹 조일 전략적결단을 내리시고 《7.4혁명》을 안아온 그 기세, 그 정신으로 련속공격하여 더 큰 승리를 쟁취하도록 국방과학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우리 식의 위력하고 다종화된 로케트들이 백두산대국의 혁명기창에 차곡차곡 쌓여있기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발전권, 번영의 미래는 억척같이 담보되고 우리 인민은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의 실체를 눈앞에 바라보고있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전두에 서시여 오늘의 대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국방과학전사들을 조선로동당의 붉은 과학전사, 열혈충신으로 내세워주시며 또다시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신분은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이시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연설자는 국방과학전사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로케트개발집단의 위대한 스승, 친어버이가 되시여 걸음걸음 가르쳐주시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세계적인 대성공, 대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밑에 《3.18혁명》과 《7.4혁명》을 거쳐 7.28의 기적적승리를 창조한 기세드높이 기동성과 타격력이 높은 새형의 탄도로케트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공중과 해상, 수중의 모든 공간에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국방과학연구성과들을 련발적으로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이시고 사회주의승리의 위대한 기치이시며 우리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안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귀한 인생의 진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당중앙이 구상하고 결심하는 우리 식의 강위력한 전략적공격수단,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완성함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선군혁명병기창을 억척같이 다져나갈 참가자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민족사적인 대승리를 안아온 긍지드높이 련속공격 앞으로!

위대한 전승의 축포성이 머저올랐던 7월의 하늘가에 또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장쾌한 뢰성이 울려퍼졌다.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천만군민의 무한한 긍지와 격정의 환희가 만리대공으로 더욱 세차게 솟구쳐고있다.

조선로동당의 열혈충신들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한 기세드높이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서 다시금 완벽한 대성공을 이룩한것은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기적중의 기적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밑에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 민족사적인 대승리가 가지는 의의는 참으로 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7월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달이다. 이런 뜻깊은 달에 세기를 두고 강위력한 국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련이어 안아오고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선언하는 통장훈을 다시한번 울린것으로 하여 오늘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성공은 주체혁명, 선군혁명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졌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세인의 예상을 뒤엎으며 만리마의 속도로 급상승하는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의 일대 시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시였을 때 온 세계의 이목은 병진의 기치높이 질풍같이 전진하는 주체의 핵강국에로 더욱 집중되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석달 남짓한 사이에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단번성공하는 《3.18혁명》이 일어났고 이때로부터 두달도 안되는 기간에 주체적핵강국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화성-12》형시험발사의 성공이 이룩되였다. 우리의 국방과학부문에서 그처럼 놀라운 발전속도로 안아온 련속적인 기적적성과들은 세인을 끝없이 경탄시키였다. 그후 불과 50여일만에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억측과 망설, 극악한 방해책동을 보기 좋게 짓누르고 마침내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서 단번성공함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다.

오늘 세계적으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나라들은 몇개 나라뿐이다. 그러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설계와 제작으로부터 모든것을 전부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으로, 완전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였으며 시험발사에서도 단번에 성공한 나라는 우리 공화국밖에 없다.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여기에 조금도 만족하지 않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을 세계앞에 쟁쟁이 보여줄 신심드높이 결사전을 벌려 대륙간탄도로케트 2차 시험발사준비를 앞당겨 끝내는 혁혁한 위훈을 세웠다. 한달도 안되는 짧은 시일안에 거의 1 000km나 더 상승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제작완성하고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오늘의 대승리는 남들이 걸어온 백걸음, 천걸음을 한달음에 뛰여넘으며 최대속도로 비약하는 우리의 국가핵무력의 강화발전의 자랑찬 모습을 만천하에 똑똑히 보여주었다.

최후의 승리는 최강의 핵보검, 핵공격수단을 틀어쥔 우리에게 있다. 세계는 모진 광풍과 시련속에서도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는 주체조선의 눈부신 성과들을 계속 보게 될것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미제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고통에 대하여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련속타격전을 들이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신념의 힘있는 과시이다.

미제는 《독립절》에 우리가 보내준 대륙간탄도로케트《선물보따리》를 받고 무서운 공포에 전률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협》으로 요란스레 떠들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초강도제재결의》를 조작해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우리가 이번에 또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제호전광들에게 주체조선을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로 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것이 우리 당과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우리는 미본토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시험발사에서 단번성공한 그 기세를 슬간도 늦추지 않고 주체조선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판별하지 못하는 미제에게 련속강타를 들이댐으로써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올것이다.

7월의 하늘가에 련이어 울려퍼진 승전포성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담대한 배짱, 빛나는 지략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전승의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7월에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기적과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실 용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케트연구부문에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최대사거리를 모의한 시험발사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매일매일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발사당일 밤에는 로케트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여 현지에서 지도하신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우리를 상대로 희떠운 전쟁나발과 극단적인 제재위협을 때들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는 미제에게 정의의 핵뢰성으로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주의 신념과 혁명적원칙성, 백두의 공격정신에 세계가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7월의 련전련승은 조선로동당의 병진로선과 전략적결단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우리 인민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겁쌍이는 시련속에서도 우리 인민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당이 열어준 병진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여왔다. 대륙간탄도로케트 1차,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려온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이다. 백두산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사상과 정으로 굳게 뭉쳐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대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병진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국가핵무력강화에 더 큰 박차를 가하며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제시여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7월의 대경사, 특대사변을 련이어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강국의 꿈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한 정력으로 세월을 주름잡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쌍그리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동서고금에 없는 천재적인 전략가, 탁월한 령도자, 헌신적인 애국자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리를 뼈와 살에 쪼아박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혁명사상밖에는 모른다는 투철한 관점, 당중앙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가려는 비상한 각오,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천하려는 혁명적의지가 우리모두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맥동쳐야 한다. 당의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불패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는 최강의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개발완성하여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7월의 대승리를 안아온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당중앙결사옹위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로케트연구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중앙이 요구하는 그 어떤 첨단무기체계도 최단기간내에 완벽하게 개발해나가는 세계에 유일무이한 조선로동당의 최정예과학연구집단, 충정의 전투대오이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가는것은 우리 국방과학전사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의 핵이다. 누구나 국방과학전사들처럼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당에서 바라는 높이에서,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완전무결하게 집행해나가는 결사관철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중시의 열풍,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과학기술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

7월의 승전고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전역에서 자랑찬 승리의 포성을 더욱 힘있게 울려나가야 한다.

오늘 군수공업과 경공업은 우리 혁명의 2대전선이다. 우리 당이 병진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자위적국방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형화적조건을 마련하고 어기에 더 큰 힘을 넣어 하루빨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과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기 위해서이다.

지구상의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는 주체무기, 주체탄을 틀어쥔 우리에게는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여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구상과 결심을 가장 빛나는 실천으로 받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끊임없는 생산적앙양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하여 만리마대진군의 하루하루를 인민생활향상의 승전포성으로 이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만리마선구자대회를 경제건설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 생산돌격전을 맹렬히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7월의 축포성을 더 큰 승리와 비약의 포성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만리마의 속도로 폭풍쳐 내달리는 강대한 사회주의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사회주의강국의 펭바루를 향하여 련속공격해나가자.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백두산대국의 위력 더 높이 떨치자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한 소식에 접한 각계의 반향

세계를 굽어보는 강국의 위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입니다.》

지금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완전성공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내각의 전체 일군들은 우리 조국을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려세우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끝없는 환희로 가슴설레이고있다.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단번성공에 련이어 이번에 또다시 국방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쾌승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책동을 단호히 쳐물리치며 이 땅우에 정의와 자주의 새 력사를 수놓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강용한 기상이며 세계를 굽어보며 질풍노도처 나아가는 내 조국의 참모습이다.

매일매일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준비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고도 발사당일 밤에는 로케트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여 지도하시며 그 빛나는 성공을 또다시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을 우리볼수록 그이께서 바쳐오신 헌신의 자욱자욱이 눈앞에 어려와 눈굽을 적신다.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담대한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또다시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우리 내각의 전체 일군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상최대의 영광과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막강한 위력을 세계앞에 쟁쟁이 보여준 국방과학전사들의 불타는 충정과 결사관철정신은 지금 우리 경제부문 일군들을 비상히 각성시키고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책임감을 다시금 깊이 자각하고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기풍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만짐을 지고 달리고 또 달려나가겠다.

하여 뜻깊은 시변들로 가득찬 올해에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서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경제강국건설에서도 최후승리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려나가겠다.

내각부총리 등정호

신심드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의 소식에 접한 우리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는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정말 통쾌하다. 우리 인민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병진로선의 기치높이 허리띠를 조이며 앞당겨오는 행복의 래일이 바로 지척에 있구나 하는 생각에 신심이 백배해진다.

공화국력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을 맞이하고보니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해 국방과학전사들과 고생도 시련도 함께 나누시며 오늘의 민족사적대경사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가슴가득 사무쳐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우리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는 이번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을 전공적으로 벌려 만리마대진군의 포성을 더욱 높이 울리도록 하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에 결사의 실천으로 보답한 국방과학전사들처럼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과학기술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여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참신하게 벌려나가겠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기의 숭고한 리상을 향해 폭풍쳐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을 쥐울자는 이 세상에 없다.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승리의 신심드높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능오

세계에 명성떨치는 대학으로

카증스러운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선언하는듯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또다시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장쾌한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시기 위하여 불같은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이 숭엄히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주요 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떠는 미제의 핵전쟁위협공갈을 받지 않고 사회주의강국에서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무수한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있다.

이와 함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룡남산의 교육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대학으로서의 높은 권위에 맞게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보다 과감히 전개해나갈 신념의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지난해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세상이 부러워하게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들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이 추켜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라는 신념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해나가겠다.

전 교정에 당중앙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이 꽉 차넘치게 하여 당에서 바라는 최첨단과학기술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도록 하며 교원, 연구사, 학생들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들로, 재능있는 인재들로 훌륭히 키워나감으로써 애국충정으로 수놓아진 룡남산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겠다.

우리 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고있는 국방과학전사들처럼 내 조국을 인민의 천하제일강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렬에서 우리 룡남산아들딸들이 이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안아오는가를 세계는 보게 될것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 려형철

단천전역에서도 승리의 포성을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한 단천발전소건설전역은 대승리의 환희로 세차게 들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선군조선의 막강한 정의의 힘이 붉은 불줄기를 내뿜으며 솟구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기뻐 서로 얼싸안으며 격정의 함성을 힘껏 터치였다.

우리 당의 열혈충신들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미국놈들의 구린내나는 상통을 또 한번 얼얼하게 답새겼다.

정말 가슴후련함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으로 또 한번 승리의 통장훈을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걸으시는 국방력강화의 위대한 장정우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는 기적적인 승리들은 지금 단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인민군군인들과 전체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을 더 깊이 새겨주고있다.

모두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의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살며 투쟁할 일념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불길굴건설장들과 단천1호, 5호, 6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전투장의 그 어디에서나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기세로 하여 시간이 감에 따라 공사성과가 확대되고있다.

우리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공민된 긍지를 안고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도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가겠다.

단천발전소 1단계건설을 당이 정해준 기일안에 무조건 끝냄으로써 조선인민의 무궁무진한 자력자강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겠다.

단천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 책임자 심상모

주체조선의 국력을 또다시 과시한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 더 큰 생산적앙양을 일으킬 결의에 넘쳐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 본사기자 찍음

하늘에는 주체탄, 땅우에는 풍년낟가리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막 터질것만 같다.

영웅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을 새우고 장쾌한 불줄기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내며 우주만리로 단숨에 솟구쳐오르는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장한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모두가 얼싸안고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7.4혁명》의 격정과 승리의 희열이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꽉 차있는데 불과 20여일만에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성공소식에 또다시 접하였으니 정녕 세상에서 제일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이 자랑, 이 기쁨, 이 영예를 과연 어떻게 다 헤칠수 있겠는가.

오늘의 대승리는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자각과 열정을 백배해주고있다.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에게 이제 쌀, 쌀만 많으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은 문제없다.

바로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도 농업전선을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해주시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면책나 가혹한 자연의 횡포로부터 사회주의전야를 믿음직하게 지키도록 해주신것 아니랴.

당의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 새겨안고 우리는 과학농사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다수확은동을 힘있게 벌려 앞그루농사에서 벌써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아니라 지금 우리 농장의 포전마다에서는 가물과 고온을 이겨낸 벼포기들이 귀중한 이 땅에 더 깊이 뿌리박으며 푸르싱싱 키를 솟구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전인불발의 투쟁으로 민족사적인 특대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이 높이 추켜든 이 기치는 지금 우리 농장 전체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서도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안고 령도자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가는 우리 당의 열혈충신들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해 눈벼비배관리를 짜고드는 속에서도 매일 물베기계획을 150%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우리는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인민의 뜻으로 선 나라 한없이 부강하는 이 조선 길이 빛내세라는 애국가의 구절구절을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농사일에 혼심을 들여 세계가 경탄하는 주체탄이 련이어 날아오른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기어이 풍년낟가리를 높이높이 쌓아올리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결의다진다.

숙천군 약전농장 관리위원장 김성희

정 론

조선의 힘 세계를 뒤흔든다

7월의 마지막날이다. 허나 우리는 쉬이 말력을 번질수 없다.

얼마나 많은 날과 시간들이 이 땅에 흘렀고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날들은 또 얼마였던가.

조선의 2017년 7월의 무게는 실로 거대하다. 바로 이 7월에 우리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사무치게 갈망해온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풀었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민족사적대사변을 현속 안아올리였다. 우리 조국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세계가 조선, 위대한 그 이름으로 진동한 2017년 7월의 력사적의미는 《위대한 영웅조선 만세, 만만세!》이다.

1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우리의 2017년이였다.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고, 한번 해보자고, 신심을 안고 발사진지로 진출하라고 하시며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면동이 터오는 새벽하늘아래에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등을 떠밀어주시던 지난 2월의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의 그날부터 참으로 장엄하고 즐기차게 이 땅을 진감해온 주체적핵무력강화의 2017년 전승실록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나라의 강성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입니다.》

조국청사에 《3.18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긍지높이 명명된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성공의 의미도 대단하였고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을 비롯한 새형의 전략무기들의 실전능력을 현이어 과시한 5월의 기상도 눈부시였다.

그것은 미구하여 터질 거대한 사변을 예고하는 력사의 우뢰와도 같았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조선인민이 안아올 사변과 기적의 정점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세계가 말없이 주시하던 그때 드디여 행성을 뒤흔드는 대사변이 터졌다.

7월 4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을 알리는 주체조선의 전승보도가 삽시에 우주를 뒤덮었다.

행성이 진동하였다. 한 외신은 그 광경을 두고 지구가 깨여져나가는것과 같은 충격이였다고 평하였다. 세계의 통신, 방송들이 일제히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을 특별보도로 전하였다. 마치 수십년전 7월 강대성의 《신화》를 자랑하던 미제를 력사상 처음으로 내리막길의 시초에 몰아넣은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로 세계가 끓어번지던 때를 방불케 했다.

조선이 안아온 특대사변으로 월초부터 끓어번진 격동의 7월이 마야흐로 마감을 가까이하고있던 지난 29일, 세계는 또다시 축가마끓듯 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하였다는 우리의 승전보도가 메아리친것이다.

대륙간탄도로케트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투명이 립증된 이 과학적현실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을 백악관무리들의 넋살이 난 몰골이 보이는것 같다.

패배의 수치도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원쑤들을 혼비백산케 하고 더러운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은 승냥이들과는 끝까지 결산할것이라는 조선의 의지와 신념을 말이 아니라 드세찬 현속공격, 현속강타로 보여준 영웅조선의 위대한 7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서 민심만큼 정확한것은 없다.

온 나라는 환희와 격동의 용암으로 끓고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민족의 특기할 대경사로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슴설레이고있다.

하늘에 닿은 민족의 긍지이다. 수천척지하막장의 탄부로부터 전야의 농장원, 과학자들과 청년대학생들, 붉은넥타이소년단원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국이 안아온 특대사변앞에 흥분을 금치 못하며 심장의 격정을 터놓는다.

《저는 시라는것을 써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를 썼습니다. 터놓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는 충동과 흥분을 저로서도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철의 기지의 한 용해공이 이렇게 서두를 달아 써보낸 시의 한구절을 여기에 적는다.

아침에 잠을 깨여 저 하늘 바라보아도
심장은 터질듯 긍지로 부푼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장쾌한 비행운이 보일것만 같아서

혁신으로 수놓은 일터의 하루
위훈의 비결 물을 때에도
가슴뿌듯한 긍지로 고동치는 이
심장의 박동을 들려주고싶다
나는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공민이다!
나는 위대한 강국의 공민이다!

행성의 어디에 살건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격정과 환희로 가슴들먹인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서 지켜주고 빛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가 편지를 올린 해외동포들과 《우리 민족은 21세기 영웅민족이고 우리 나라는 21세기 영웅나라이다. 우리 민족은 수소탄과 전략잠수함탄도탄에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가진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였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한 한 해외동포.

돌이켜보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력사에는 민족의 긍지가 강산을 진감한 그런 날들이 많았다. 어찌하여 7월의 하늘아래 넘치는 우리의 자부와 긍지는 그처럼 크고 드높은것인가. 무엇으로 하여 오늘의 민족사적대경사는 그처럼 천만의 심장을 끓게 하며 거대한 진폭으로 력사를 진동시키는것인가.

그 누가 인정하든말든 우리 국가는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고 당당히 선언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신에 넘치신 그 음성,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도면 미국의 정책림안자들이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것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그 말씀은 참으로 가슴후련하다.

승리를 향한 또 한걸음의 전진이나 상승이라는 말로는 오늘의 대사변의 의미를 다 담을수 없다. 나라의 지위가 달라지고 민족의 운명에서 국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조선은 결코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이 땅은 지정학적숙명론을 감수하던 그 나라가 아니다.

미제가 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로부터 우리가 미제를 사정권안에 넣고 마음대로 다룰수 있는 정치적지각변동이 일어난것이다.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우리 공화국은 드디여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지닌 강대한 나라로 세계우에 높이 올라선것이다.

어찌 위대한 내 나라 만만세! 의 격정이 터지지 않으랴. 민족의 자부와 긍지 어찌 우주만리에 치솟지 않으랴.

세계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로케트를 놓고 떠들썩하고있다. 만들어냈다는 그자체에만 의미가 있는것이 아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새형의 로케트》, 이것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에 대한 세계의 찬탄이다. 모든것이 새롭고 독창적이다. 이 행성의 몇 안되는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들중에 그 개발을 우리처럼 100%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진행한 나라는 없다. 이 분야에서 앞섰다고 하는 나라들도 핵심설비들과 중요부분품들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런데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그것도 원쑤들의 야만적인 제재속에 있는 민족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처럼 놀랍고 경이적인 사변을 이룩한것이다. 세계를 경탄시키는것은 바로 우리의 이 힘과 위력이다.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도 다 이루어내는 위대한 민족의 무진막강한 힘과 위용이 그처럼 세찬 충격파여운으로 행성을 진감하는것이다.

얼마나 가슴뿌듯한 승리인가. 진정 얼마나 드높은 민족의 자부이고 긍지인가. 누가 가져다준 승리라면 우리의 환희 이처럼 드높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승리이다!

승리의 언덕에서 우리 원수님 절절하게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참으로 깊다.

하늘땅을 진감하는 인민의 긍지가 무엇으로 하여 그처럼 뜨거운것인가를 새겨주시는 금언이다.

용암같은 불기둥을 내뿜으며 기운차게 날아오르는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들은 결코 단순한 첨단전략무기만이 아니다. 오늘의 승리를 위해 피와 땀 아낌없이 다 바치고 천만시련 웃으며 헤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그가 누구든 당을 따라 만난을 억세게 뚫고헤쳐온 이 땅의 인민이라면 떳떳이 자부할수 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사선천리길에서 변함없이 당을 받들고 조국을 수호하며 일터를 지키고 키대앞을 떠나지 않았던 강직하고 의리깊은 우리의 로동계급, 허리띠 조이면서도 전야를 가꾸고 제 집쌀독보다 나라의 쌀독을 먼저 생각해온 우리 농민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사랑알은 먹이지 못해도 나라에 총알이 많아야 한다는 애국의 신념으로 원군의 길 역세에 이어오고 《녀맹》호로를 만들어 증정한 이 땅의 녀인들과 포성이 울리지 않는 하늘아래서 조국의 승리를 위해 피와 땀,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유명무명의 애국자들…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는 그 불타는 심장과 심장들이 받들어올린 투쟁의 산아, 애국헌신의 결정체인것이다.

민족의 자부와 긍지는 그 진보와 번영을 위한 또 하나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승리자의 자부와 긍지가 하늘땅을 진감한 60여년전 7월에 이어 벅돌 한장 성한것없는 페허우에서 기적의 천리마가 나래쳐오른것처럼 우주만리에 탕은 민족의 이 드높은 자부와 긍지는 최후의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영웅조선의 진군로우에 더 큰 승리와 기적을 안아오게 될것이다.

2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조선사람, 불과 한세기전까지만 하여도 그 부름은 행성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 불행한 삶의 대명사였다. 외세의 발굽아래 무참히 짓밟히고 자기의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인민, 이 세상 그 어디에 억울함을 하소할데도 없었던 인민이 오늘은 행성의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이 된것이다.

세월이 가져다준 변천이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은 더욱 아니다.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다. 유구한 력사와 훌륭한 문화, 뿌리깊은 전통을 자부하는 민족도 있고 광활한 령토와 억대의 자원을 자랑하는 민족도 있다. 그 모든 긍지우에 빛나는 민족의 가장 소중한 자부와 긍지는 바로 위대한 수령을 모신 행운이다. 왜냐하면 수령복, 장군복이야말로 민족의 모든 자부와 긍지를 지켜주고 빛내주며 더 높은 민족의 긍지들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민족번영의 근본이기때문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라는 부름의 참뜻이 가슴을 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이는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삶을 안겨주시고 력사의 가장 수난많던 민족을 가장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받들어올리신 위대한 태양, 절세의 애국자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품에서 혁명하는 법, 투쟁하는 법을 배우며 강력한 혁명의 주체로 성장한 우리 인민을 뜨겁게 품에 안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자주의 사상과 신념을 굽히지 않는 신념의 강자, 자주적군위병들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민족이 높이 모신 또 한분의 운명의 태양이시였다.

한상의 영상사진문헌이 우리 눈앞에 어려온다.

지난 7월 27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이다.

조선의 위대한 7월이 과연 어떻게 년대와 세기를 이어 영원한 전승의 탑로 빛나는것인가를 이처럼 가슴후련하게 새겨주는 화폭은 없을것이다.

조선의 7월에는 두세기의 기적, 두세기의 특대사변이 새겨져있다.

60여년전 7월 27일의 승리, 그것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친 전승신화, 보훈으로 된 자탄을 이긴 기적중의 기적이였다.

력사는 그것을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평평하였다.

동방의 크지 않은 나라, 적들의 야만적인 제재와 봉쇄속에 있는 나라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제와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수십년간 지속되여온 조미대결구도의 총파산을 선고한 오늘의 대사변은 21세기의 특대사변으로 인류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7.27이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신화였듯이 오늘의 7월대사변은 우리 민족이 높이 모신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 불세출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장거이다.

오늘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성공소식을 앞을 다투어 전하는 외신들에서 한결같이 보게 되는것이 있다. 우리 원수님에 대한 찬탄과 흠모이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과정 현지에서 관찰》, 《조선 김정은위원장 ICBM시험발사 친필명령》,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는 김정은최고령도자가 최근시기에 이룩한 공적가운데서 가장 큰 공적》…

공개되는 즉시 세계언론계가 받아물고 중대소식으로 보도하는 우리 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는 세계적인 화제로,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무엇때문인가, 어찌하여 우리 원수님께로 향하는 세계의 관심은 그처럼 사상과 정전을 초월하여 행성의 흐름으로 되고있는것인가.

위인을 숭배하고 따르는것은 인류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이 행성의 가장 정의롭고 강인담대한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세계를 진감하는 우리 원수님의 위인상에서 세인이 제일 감탄하는것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이다.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고싶은것은 어느 나라와 민족이나 안고사는 숙원이다. 그러나 숱한 핵전략자산들을 거머쥐고 힘없고 약한 나라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짓누르며 행성의 주인행세를 하는 오만한 날강도 미제가 살판치는 이 지구상에서 그것은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을 각오해야 하는 혈전의 길, 시련의 길이다.

보통의 각오와 담력으로는 나설수 없고 끝까지 걸수도 없는 그 길을 백두의 칼바람기상으로 굴함없이 헤쳐가시는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원수님 신념의 불은기높이 백두의 기상과 담력으로 열어가시는 최후승리의 그 길을 막아보려고 원쑤들은 얼마나 미친듯이 발악하였던가.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친듯이 증강배비하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공갈하였고 무분별한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에 더욱 피눈이 되여 매달렸다. 나중에는 우리의 심장이고 운명인 혁명의 수뇌부를 겨냥한 치떨리는 테로음모도 시슴지 않았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이후 세계는 《김정은열풍》으로 더 세차게 끓고있다. 그것은 바로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력사의 기적을 기어이 안아올리신 불세출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우리 원수님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찬탄이고 격찬인것이다. 적들까지도 《김정은위원장의 미싸일개발의지에서 배울 점이 있다.》, 《김정은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한다.》, 《김정은위원장의 핵, 미싸일의지는 그 누구도 꺾지 못할것이다.》라고 실토정하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어찌면 그리도 강인담대하신가. 고난이 겹쌓일수록 더 억세여지는 우리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강철의 신념과 의지는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그것은 깊은 밤, 이른새벽 밀고 협한 화선길 끝없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장속에 걸음걸음 떼동천 결사의 의지였으리라. 미더운 국방과학전사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시험발사현장에서 헌신의 한발을 지새우시고 동터오는 새날을 맞으시던 그 무수한 날과 달들에 매일, 매 시각 우리 원수님의 심장속에 불타오른 열화같은 진정이였으리라.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 땅의 후손만대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한몸이 욕만이 되시여 조국의 존엄과 운명수호의 결사전을 벌리신 우리 원수님,

행성을 뒤흔든 7월의 대승리들이 우리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천만리, 화선천리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가슴치는 승리임을 이 땅의 후손들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우리의 승리의 7월에는 자기의 불멸이같은 웨침이 있다.

《7.4혁명》에 이어 또다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지축을 뒤흔든 7월의 뢰성은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투쟁의 신들메 늦추지 말고 계속 전진 또 전진하자는 혁명의 수뇌부의 우렁찬 나팔소리와 같다.

계속전진, 계속공격은 우리 인민의 혁명방식, 투쟁본때이다.

우리가 오늘 높이 올라선것도 신들메를 늦추지 않고 달려왔기때문이다. 우리가 남달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혁명을 크게 전진시킬수 있은것은 일생동안 신발끈을 풀어본 사이없이 달려온 덕분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불행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더없는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교시가 가슴을 친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위한 강행군길에 게시고도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그 야전련차가적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린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넘원하신 최후승리의 날은 아직도 앞에 있다.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돌고해쳐야 할 시련과 난관도 무수하다.

어찌 진군의 신들메 추호라도 늦추랴.

승리의 이 기세로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멈춤없이 나아가자.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치는 우리의 앞길에 삶과 투쟁의 거울로 빛나는 모습들이 있다.

우리 당의 열혈충신들인 국방과학자, 기술자들, 불혼 그들이 안아온 사변도 귀중하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 령도자와 사상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해나가는 기상과 분쇄는 만리마의 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의 투쟁과 위훈을 고무하는 힘있는 불길로 되고있다.

천만이 이들처럼 우리 당의 열혈충신이 되고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그 어떤 요새도 단숨에 점령하는 신념의 강자, 창조의 능수가 될 때 만리마의 발구름소리는 더 힘차게 강산을 진감하고 최후승리의 그날은 앞당겨질것이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우리 당따라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힘차게 앞으로!

영원히 빛나라 조선의 위대한 7월이여!

방 성 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더 높은 강철증산성과로 우리 당을 받들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 명 남 찍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마로끄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라바트

마 로 끄 왕 국 국 왕

모 하 메 드 6 세 폐 하

나는 마로끄왕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폐하와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좋게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7월 30일 평 양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숙천청년과수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소식과 위대성이 실린 당보와 도서들에 대한 독보와 해설모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국력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을 다게단으로, 련발적으로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실례를 들어가며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의 자욱자욱을 언제나 심장깊이 새기고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선전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한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면한 과업나무비배관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영 일

애국애족으로 빛나는 고결한 혁명생애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반석어머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그리고 그이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생관과 혁명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주체81(1992)년 4월 강반석어머님 탄생 100돐을 맞이하던 뜻깊은 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실 때 있었던 일이 삼삼히 떠오르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온갖 시련과 고초를 참고 이겨내시며 혁명무력창건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강반석어머님이시였다.

갓 창건된 반일인민유격대의 첫 대오가 안도현성에서 보무당당히 열병행진을 진행하던 력사의 그날을 잊을수 없다.

유격대원들이 메고있는 총을 어루만져보시고 붉은 오각별을 단 모자에 새 군복차림을 한 튼튼한 모습들을 보고 또 보시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하시였다.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저 꿀꿀한 우리 군대를 보셨으면 오죽이나 기뻐하시겠니. 부디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잘 싸워라.》

인간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온갖 시련과 고초를 겪으실 때에는 그리도 강인하게 눈물을 참으신 어머님이시였건만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끝끝한 새 군대를 보시고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신 어머님이시였다.

왜놈들을 치고 나라를 꼭 찾아야 한다.

강반석어머님의 그날의 당부에는 혁명을 하지면 총을 억세게 틀어잡아야 하며 총을 잡았으면 그것으로 원쑤를 끝까지 족치고 혁명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좁쌀 한말에 깃든 사연깊은 이야기는 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의 가슴 뜨겁게 울려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만원정을 떠나기 앞서 중환에 게시는 어머님을 찾으시였다. 그때 아드님이 돌고오신 좁쌀 한말을 앞에 놓으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그것을 자식의 도리라고만 생각지 않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고맙기는 하다만 그만한것으로 위안을 받을 내가 아니다. 부녀회를 눈이려고 무송에서만 네 손목을 잡고 험한 령을 넘어다닐 때에 오늘 이런 위안이나 받자구 그랬겠느냐? 너에게는 더 큰일이 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야 하지 않겠니.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조선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네 갈길이나 빨리 가거라.》

어머님의 인생관이 마디마디에 집약되여있는 천금같은 당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방문을 나서시였지만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병석에 계시는 어머님, 어머님의 크나큰 로고가 깃든 돈 20원을 손에 드신채 무거운 상념에 잠기시여 집둘레를 한바퀴 또 한바퀴 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은 과연 어떠하시였던가.

이제 떠나보내면 영영 다시 못 볼수도 있는 사랑하는 아드님을 간고한 시련의 길로 떠나보내시는 강반석어머님의 심정도 다를바 없으시였다.

하지만 모진 아픔과 솟구치는 눈물을 참으시며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말씀하시였다.

《상기두 무엇이 걱정돼서 그렇게 떠나지 못하구 우물쭈물하느냐? 나라를 찾겠다구 결심을 구나선 사람이 그렇게도 마음이 예리고 집적정이 많아서야 어떻게 대사를 치르겠니. … 빼앗긴 나라를 생각하구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 … 네가 장차로도 이 에미걱정때문에 집으로 찾아올 생각이라면 아예 이 문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아들은 만나지 않겠다.》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린 이 말씀에 어머님의 열렬하고도 숭고한 조국애가 얼마나 절절 어려있는것인가.

아드님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불속에라도 주저없이 뛰여들 어머님이시였다.

그러나 강반석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기울이신 사랑은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였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전에 나라에 충직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 대하여 잘 알고있다고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개와 넋은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경지에서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그때의 모습은 차라리 어머니라기보다도 스승에 가까운 모습이였다.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를 모시고있다는 자랑으로 하여 나는 가슴이 터져나갈것만 같은 행복감을 느끼였다라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진정 우리 수령님과 강반석어머님사이를 오르내린 사랑과 효도를 줄기차게 관통한 넓은 애국이였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

바로 이것으로 하여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이 세기를 이어 그토록 빛나는것 아니랴.

마흔해,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은 너무도 짧았다. 하지만 그이께서 조국과 혁명앞에 남기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돌이켜보면 력사에 이름을 남긴 명인들,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는 그들의 어머니들의 사랑에 대한 일화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가정의 뜨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랑이였다.

강반석어머님의 한생이야말로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누구나 따라배워야 할 참된 삶의 진리를 새겨주는 영원한 생이다.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리상을 활짝 꽃피우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륭성번영을 안아오시기 위해 사색과 실천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두에 모시였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경대가문의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 주체로 존엄높은 내 조국땅우에 인민의 만복을 기어이 꽃피울것이다.

본사기자 강 철 남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진행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를 또다시 맞이한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온 나라 강산에 차넘치는 속에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7월 30일 인민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공연장소는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력사에 류례없는 로케트개발기적을 창조하여 주체조선의 불패의 강대성과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세계에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승리자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리만건동지, 리병철동지와 당, 무력기관 일군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 국방과학부문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은 련이은 승전포성과 다게단의 특대사변으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힘차게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진군가를 새롭고 특색있게 형상하여 환희로운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서곡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영광드립니다 조선로동당이여》,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녀성3중창 《아버지라 부릅니다》, 색스폰2중주를 위한 경음악 《운명의 손길》,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경음악 《공화국로케트병행진곡》에서 출연자들은 빈터우에서 자립적국방공업의 터전을 다지시고 병진의 기치높이 주체적로케트공업발전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기에 빛날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식 전략무기체계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뜨거운 격정속에 되새겨보았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결사전의 선두에 서시여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흙먼지 자욱하고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국가핵무력강화의 최고봉을 단숨에 점령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거룩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장내에는 열광적인 박수가 터져올랐다.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력사의 모진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만리마의 속도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질풍쳐 나아가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 기악과 노래 《빛나는 조국》, 녀성중창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네》의 선률에 실려 장내에 높이 울려퍼지였다.

경음악 《단숨에》, 녀성중창 《화성포의 노래》 등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제일전우, 제일동지가 되여 불과 20여일만에 보다 성능이 개선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완전무결하게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한 국방과학전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신념을 새겨준 공연은 종곡 《그이 없인 못살아》,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필승불패의 기상을 사상예술적으로 잘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명주국의 위용을 만방에 련이어 떨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만리마대고조진군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며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7월의 련이은 대경사, 특대사변을 맞이한 환희의 춤바다

수도의 곳곳에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을 경축하는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30일에 진행되였다.

김일성광장과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나아가는 자력자강의 만리마대진군길에서 세계를 진감시킨 일대 사변, 특대경사를 또다시 맞이한 환희와 격정을 안고 모여온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선률이 무도회장들에 울려퍼지자 경축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며 조선로동당의 강위력한 전략적핵무력으로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아름다운 춤물결을 이어나갔다.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담대한 배짱, 뱅활한 지략으로 세인의 예상을 뒤엎으며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명주국의 위용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주신 희세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환희가 차넘치는 무도회장들에 《인민의 나라》,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내 마음 별에 담아》 등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지고 화려한 춤바다가 세차게 설레이였다.

각계층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열혈충신들인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더 큰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감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일념안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끝없는 기쁨과 랑만에 넘쳐 서로서로 마음을 맞추며 박력있게 춤을 추는 청년학생들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값높은 청춘의 위훈을 별처럼 새겨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었다.

《황금산타령》, 《흘라리》의 선률에 맞추어 참가자들이 흥에 겨워 손벽을 치며 어깨춤 두둥실 환희의 물동들을 끝없이 펼치는 무도회장들에 승리의 함성이 련이어 터져올랐다.

언제나 련전련승의 기적과 승리의 룡장훈을 부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는 속에 무도회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건설위업수행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전통을 이어 오늘의 만리마시대를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수놓아갈 참가자들의 끝없는 열정과 기백이 《7.27행진곡》, 《전선에서 만나자》의 노래들에서 힘있게 분출되였다.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무도회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반제반미대결전의 장쾌한 승전포성을 끊임없이 울려갈 우리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광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30일 왔다호 싸와쓰 기술, 공보 및 대외관계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림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지난 28일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명주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존엄과 위용을 다시한번 만방에 과시한 장쾌한 승리로 된다.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케트를 기습발사할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였으며 미본토전역이 우리의 사정권안에 있다는것이 뚜렷이 립증되였다.

우리가 이번에 굳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만대하는 제재압박소동에 미쳐날뛰며 적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성공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 2차 시험발사를 눈여겨보았을 미국의 정책립안자들은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이라는 침략국가도 무사할수 없으리라는것을 제대로 리해하였을것이다.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최떠운 전쟁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보유력만 더해주고있다.

미제야수들에 의하여 이 땅에서 참혹한 전란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려세울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전략자산이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피비린 침략전쟁과 극악무도한 적대시책동으로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해온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흔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엎바진 장난길을 해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다.

미국은 세계적인 핵강국, 로케트강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보복의지를 똑바로 보고 우리를 해치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걷어치워야 한다.

만일 미국이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모험과 《초강도제재》책동에 매여달린다면 우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30일
평 양

2017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선수들 귀국

2017년 아시아청년 및 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나라 선수들이 30일 귀국하였다.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네팔의 까트만두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금메달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일 의지를 안고 평시에 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여러 몸무게급별경기들에서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를 쟁취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송국항선수는 이번 선수권대회 63kg급몸무게의 청소년과 청년녀자경기에 모두 출전하여 끌어올리기와 종합에서 각각 1위, 추켜올리기에서 각각 2위를 함으로써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쟁취하였다.

청년녀자 58kg급경기에 참가한 강현경선수와 청년남자 69kg급경기에 출전한 박정주선수도 끌어올리기와 추켜올리기, 종합에서 각각 1위를 하여 금메달들을 받았다.

관계부문 일군들이 평양역에서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우승의 금메달들을 어머니조국에 안고온 선수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한 송국항, 강현경, 박정주선수들

해양체육활동 활발

학교체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학교들에서 7, 8월해양체육월간에 수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평양시안의 중학교, 소학교들에서 학생들의 수영훈련조직을 짜고들고있다. 평천구역 해운고급중학교, 중구역 창전초급중학교, 동흥초급중학교, 사동구역 리현고급중학교, 평양제4소학교에서 체육수업과 함께 소조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보는 학생들이 해양국의 청소년들답게 수영을 잘하도록 하고있다.

원산과 함흥, 해주, 남포시를 비롯한 해안지역의 학교들에서 해양체육열풍이 일고있다.

온산, 문덕군 등 평안남도의 여러 군들의 학교들에서는 교직원들이 학생들에게 가슴헤염, 누운헤염 등 수영방법을 알기쉽게 알려주는 한편 도하경기를 널리 조직하여 집단주의정신과 높은 수영능력을 키워주고있다.

희령시, 어랑군 등 함경북도와 사리원시, 은파, 승호군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시, 군 학교들에서도 이미 있던 수영장의 능력을 확장하고 물질기술적조건을 원만히 갖추어놓은데 기초하여 수영훈련을 진행하고있다.

자강도와 량강도내 학교들에서는 수영장의 운영을 짜고들어 학생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역군들로 준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하도록 하고있다.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2017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같다.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5일: 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이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내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분수령을 마련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려 광물생산목표를 기한전에 앞당겨 점령함으로써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억센 기상과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 광물생산계획을 101.5%로 완수한 영웅소대원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평양견학의 나날을 보낼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지난 24일 수도 평양에 도착한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

주체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홀들에 들어선 그들은 거룩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더 높은 광물증산성과로 꽃피워갈 결의를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그들은 열렬한 조국애와 혁명의 큰뜻을 키우시며 성장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되새겨보며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은 영웅소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송지하게 받드시고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죽어도 버리지 않는 불굴의 신념을 지니고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한몸바친 혁명선렬들처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인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웅소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박물관이 세상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으로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전시된 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검덕의 영웅소대원들은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나날들을 이어갔다.

그들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중앙계급교양관, 과학기술전당, 려명거리를 참관하였으며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는 평양가방공장과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도 돌아보았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훌륭히 일떠선 만경대유희장과 문수물놀이장, 릉라곱등어관,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에서 그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내였으며 국립교예단공연도 관람하였다.

옥류관, 청류관을 비롯하여 수도의 이름난 식당들에서 푸짐한 식탁을 마주한 그들은 응당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을 만리마시대의 선구자로 내세워주고 크나큰 사랑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는 어머니당의 은정에 북받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뜻깊은 평양견학의 나날들을 보낸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만리마시대의 첫 선구자집단의 영예를 계속 빛내어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으며 평양을 떠났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공민된 긍지 강산에 넘친다

우리의 승리는 과학이다

7월 4일의 대사변을 만세, 만만세의 환호속에 장엄히 아로새기고 예술네번째로 찾아온 7.27전승절을 가슴벅찬 환희에 넘쳐 경축했던 내 조국이였다.

반만년민족사의 대경사, 특대사변이 안겨준 감격으로 끝없이 가슴뛰이며 전민총돌격전의 기세높이 달리던 인민, 녀성들에게 긍지를 더해주는 남녀평등권법령발포 71돐을 뜻깊게 기념하자며 설레이던 우리 인민이였다.

그러던 이 땅에서 다시한번 온 행성을 뒤흔드는 거대한 승리의 뇌성이 울려퍼졌다.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의 일대 시위, 대륙간탄도로케트《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에서 또다시 성공!

7월 4일의 만세소리가 아직도 강산에 메아리치는데 또 대승리를 맞이하였으니 조선의 7월이 만세소리로 가득찼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시대의 숨결을 남먼저 느끼고 인민의 지향을 날날이 호흡해온 우리 언론인들이 이 시각 위대 수령에 적어나가는 민심은 정법하지 않다.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면 《화성-14》형의 그 폭음은 으드득- 하고 미국놈의 목대가 우리 손에 꺾어지나가는 소리만 같았다고 통쾌한 심정을 터놓던 평양기계종합대학 부총장 주동철동무.

《…3, 2, 1, 발사》라는 자막과 함께 마치 공식과도 같이 정확히 우리의 《화성-14》형이 만리대공으로 날아오르던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셈세기가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화성-14》형은 하늘로 오르고 미제의 어리석은 망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진것이 아니겠습니까.》라고 국립연구단 예술부단장 라성국동무 역시 흥분속에 이야기하였다.

돌이켜보면 64년전의 7.27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새로운 반미대결전을 시작하였다. 얼마전 전 미국방장관이라는자가 미국이 1953년부터 조선과의 전쟁을 준비하여왔으며 항시적으로 그 능력을 제고해왔다고 실토한것을 놓고서도 알수 있는것처럼 사실상 그 대결전은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때부터 오늘까지 총포성이 없이 지속되였던것이다.

그런데 세상사람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그 7.27로부터 64년이 지나 7월 28일 또 하나의 거대한 승리가 아로새겨졌다.

이 사실이 과연 우연한 일치이겠는가.

보라.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놈들이 몹쓸 못하게, 더는 마지막흉계마저 꿈을수 없게 련이어 통장훈을 부르고 마음먹은대로 패승을 안아오는 우리 조국을.

미국놈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또다시 구린내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방망이를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무력으로 혹독히 버릇을 가르쳐줄것이라고 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말씀 그 얼마나 가슴후련한가.

7.27에서 7.28에로!

달리는 필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다.

7월 27일이 지나면 반드시 7월 28일이 밝아오듯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질수 없듯이 조선의 승리는 법칙이다. 《화성-10》의 뒤에 《화성-12》형이, 《화성-12》형의 다음에 《화성-14》형이 어김없이 성공한것처럼 조선의 승리는 과학으로 증명되였다.

64년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양키의 기발을 짓밟고 전승광장을 지나갔지만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는 오늘 거만한 아메리카제국의 본토전역을 짓밟은것과 같은 쾌감에 넘쳐 승리를 웨친다. 조선의 승리는 영원한것으로 되였음을 긍지높이 세상에 알린다.

류수와 같은 세월속에서 누구는 번영의 기회를 맞을수도 있고 또 누구는 뒤기 어려웠던 승리를 이룩할수도 있다. 하지만 련속적인 거대한 승리속에서 세월을 맞이하고 보내는 이처럼 놀라운 나라가 그 언제 있어보았던가.

오늘 영웅조선의 힘, 우리의 힘은 실로 무진막강하다.

그 힘은 수백, 수천배나 되는 적대세력들이 물샐틈없는 봉쇄를 가해와도 만리마의 발굽으로 힘차게 박차버리면서 모든 꿈과 리상을 이룩해나가는 전설적힘이며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천쓰이건 생존불가능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들씌울만큼 강대한 힘이다.

《원쑤놈들이 우리가 더이상 한치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금줄의 차단이요, 최대의 압박이요 뭐요 하면서 그렇게도 분주스럽고 분별없이 들볶았지만 그때 막은것은 무엇이고 얻은것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회과학원 사회정치학연구소 소장 서성일동무가 한 말이다.

그의 말이 옳다. 저들은 그 어떤 권모술수와 발악적책동으로써도 우리의 필수불가결의 전략적선택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고 숨막히는 공포와 전률의 《선불보따리》만 눈짤이 뒤집혀지게 련속 받아안지 않았는가.

정의와 진리로 다져지고 그 세기에 있어서 한계를 모르는 최강의 힘을 지닌 나라와 인민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나날이 최후승리의 높은 령마루를 향해 번개처럼 돌진하는 영광스러운 내 조국의 강용한 기상과 함께 그 무한대의 힘을 뜨겁게 절감하는 인민의 마음은 이 시각 어디로 달려가는것인가.

그이는 조선의 승리를 영원한 법칙으로, 절대적인 과학으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이시다.

반만년민족사의 대경사, 특대사변을 안아오시느라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우리 원수님께서 잠시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인민은 그토록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는 순간도 멈춤이 없으시였다.

가증스런 원쑤들의 마지막미련마저 재끗이 태워버릴 때까지, 다시는 이 땅, 이 하늘아래 흉물스러운 상통을 들이밀 엄두를 내지 못하게 자신의 심장에 결사대 앞으로!의 구령을 쉬임없이 내리시였을 우리 원수님.

위험하기 그지없는 화선길에 계시는 그이의 근엄한 안광을, 태양처럼 눈부신 미소를 우러르느라니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구절이 저도모르게 때오르며라고 눈물에 젖어 말하던 한 할머니의 토로는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가.

정녕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다시금 우러러뵈왔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기 위한 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이 한몸을 아낌없이 내대고 굴함없이 싸워나갈것이며 설사 몸이 찢기고 쓰러진다 해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나 변함없이, 사심없이 우리 인민을 높이 받들어 혁명앞에 충실할것을 맹약하시던 우리 원수님의 숭엄한 영상을.

그 심장의 맹약을 안으시고 천추만대에 길이 전해갈 불멸의 대공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다함없는 흠모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기에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이것이 이 시각 강토에 굽이치는 흥분과 격정, 한껏 달아오른 민심의 결론이며 우리 원수님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백두산약파도 같은 천만군민의 신념이다.

본사기자 리 건

월미도의 포성이 울리는 곳에서

피바다가극단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바다가극단의 전체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은 당의 의도대로 예술창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5대혁명가극의 고귀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앞장서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소식이 온 나라를 격동시키던 그 시각 수도 평양의 대동강반에 자리잡은 평양대극장에서는 사람들의 흥분과 격정을 더해주는 류다른 포성이 울려나왔다.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이 쏘고 또 쏘는 멸적의 포성이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을 맞으며 새로 창작창조된 혁명가극 《월미도의 3일간》의 공연이 며칠째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평양대극장이지만 이날의 광경은 더욱 이채로왔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의 명령대로 인민군대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싸운 월미도용사들의 불굴의 투쟁을 혁명가극의 무대우에 펼치는 출연자들의 열정넘친 모습에도, 무대의 막은 닫겼지만 이윽토록 자리를 뜨지 못하는 관람자들의 눈가에도 형언할수 없는 격정과 흥분이 력력히 비끼였었다.

《3일동안이나 적들의 상륙을 막아낸 어제날 월미도의 포성을 직접 듣는것만 같았다.》, 《대지를 박차고 솟구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의 장쾌한 폭음과도 같이 우리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었다.》, 《혁명가극의 위력이 정말로 놀랍다. 《조국과 인민위해 결사대 결사대 앞으로》라고 격조높이 울리던 노래소리를 잊을수 없다.》…

누구라없이 피치는 관람자들의 흥분된 목소리에서 공연의 성공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며 우리는 혁명가극의 창조성원들을 만났다.

공연성과를 축하하는 우리에게 피바다가극단 연출실장 채명서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성공에로 이끌어주신 감격적인 혁명활동보도에 접하고 진행한 오늘의 공연은 우리 출연자들에게도, 관람자들에게도 다같이 의의있는 공연이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다. 단 4문의 포를 가지고 5만여명의 대병력과 수백척의 함선, 약 1000대의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달려드는 적들과 맞서 싸운 월미도용사들을 비롯한 어제날의 1950년대 영웅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피로써 결사관철하여 위대한 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국방과학전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최강의 전략무기, 주체무기들을 련이어 만들어냄으로써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오늘은 우리가 혁명가극 《월미도의 3일간》을 공연하면서 무대에서 많은 포소리를 울리고있지만 이제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전승신화를 작품에 올릴 때에는 《화성-14》형의 장쾌한 메아리를 울리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흥분을 터놓는 창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오늘의 승리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들은 새 세기에도 혁명가극창조활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오늘의 공연무대에서 울리는 월미도의 포성을 새로운 가극창조의 포성으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장쾌한 승전포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는 창작가들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였다.

이렇게 또 한번 크게 성장한 피바다가극단 《월미도의 해안포병들》의 어엿한 모습은 그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만리대공에 아름답게 새겨진 《화성-14》형의 비행운에 발걸음을 따라세우며 기세충천하여 돌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군상마냥 안겨왔다.

참다운 삶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안고 희열에 넘쳐 돌아가는 관람자들의 얼굴에서 우리는 신심드높이 또다시 새로운 돌격전에 떨쳐나서는 천만군민의 기상을 확신하였다.

본사기자 우정혁

화성의 신호탄

7.27명령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7.27, 바로 이날이였다.

주체106(2017)년 7월 27일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친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위대한 력사의 재현을 보는것만 같다.

지금으로부터 64년전 7월 27일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승의 날을 맞이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를 발사할데 대한 가슴후련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470호에 따라 전승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는 124문의 포들이 일제사격으로 각각 24발의 축포를 발사하였다. 한편 우리 수령님께서 명령서를 하달하신 그날 신성한 우리 조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 미제침략자들은 항복서인 정전협정문에 패전의 수치스러운 도장을 찍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7.27에 내리신 명령! 그것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에게 다물려 있던 정의의 력장검을 높이 추켜드시고 온 세계앞에 장엄하게 선포하신 또 하나의 전승선언이였다.

불패의 영웅조선은 백공같에 미쳐날뛰는 미제원쑤들이 함부로 이 땅에 덤벼든다면 씨도 없이 축탕쳐버리고 최후승리를 안아올것이라는 통첩장이였다.

그렇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선군조선의 전승의 7.27은 영원하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본사기자 리수정

신호탄

우리 조국의 밤하늘에 희붉은 화광을 거세차게 내뿜으며 용용히 솟구쳐오르는 《화성》의 모습은 우리 인민에게 그 어떤 약속된 신호를 하는것만 같다.

하다면 무엇을 예고하고 무엇이 약속되여있는가.

《화성-10》,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이 한기두기 오르면서 어느덧 우리 인민은 그 폭음에 익숙되였고 그 비행운을 바라보며 비행궤도를 그려보는것이 이제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였다.

마치도 우리 조선의 전략적지위가 더더욱 하늘로 치닫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국이 굳건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공갈로도 우리의 행복한 생활, 우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빼앗을수 없다는것을 예고해주는듯, 지혜와 힘과 열정을 있는껏 다 바치는것이 기쁨인 그 아름다운 삶이 영원하기에 더 좋은 래일을 보란듯이 설계하고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약속하여주는듯싶다.

바로 그래서이리라, 저 《화성-14》형의 불줄기를 보며 우리 인민이 그토록 신심과 확신에 넘쳐있고 더 큰 진전의 보폭을 내짚으며 일러로, 초소로 달려가고있는것은.

어떤 뜻을 나타내도록 미리 정해놓은것을 신호라고 한다.

《화성-14》형이야말로 어둠의 장막을 밀어낸 승리의 밤이 머지않아 최후승리의 려명을 불러올것이라는것을 알리는 신호탄, 미국이라는 침략국가가 지구상에서 통째로 사라져 세계의 평화가 반드시 도래할것이라는것을 예고하는 조선의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강효심

관바로 화성이

력사적인 7월 28일은 얼마전 우리가 평양산천에서 보았던 화성이가 태여난지 20여일이 되는 날이였다. 룡강땅에서 온 류류영예군인녀성이 평양산천에서 떡돌같은 아들을 낳은 날은 바로 우리 당력사에 영원히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7월 4일이였다. 민족의 기상과 존엄, 무진막강한 핵강국의 상징이 그대로 이름으로 된 화성이,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완전성공소식과 더불어 생의 고고성을 터친 화성이가 이제 겨우 눈을 떴는데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성공의 장쾌한 뇌성이 또다시 지구를 진감시켰으니 끓어오르는 환희의 파도는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갔다. 남들이 10년, 20년 아니 세기를 두고도 이루지 못할 위대한 사변이 불과 20여일동안에 두번씩이나 일어났으니 우리 귀여운 화성이가 이제 한살이 되고 세살이 되고 열살이 될 때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눈부신 비약을 이룩할것인가.

그러니 세기를 주름잡는 대사변들로 이어진 위대한 만리마시대에 태여난 화성이의 얼굴에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그대로 어려있는것이 아닌가.

지금껏 해빛밝은 평양산천의 요람속에서 단잠에 들었을 화성이의 모습을 그려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웨쳤다.

화성아! 탄도로케트의 장쾌한 비행운으로 더더욱 맑고 아름다운 하늘아래서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자답게, 광명한 미래에로 끝없이 질주하는 주체조선의 증견자답게 무럭무럭 자라나거라. 그것이 달리는 필수 없는 화성이, 너의 복이란다.

본사기자 김성민

신기록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는 경사대 국방과학전사들이 이룩한 이 신화적인 개발창조속도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세계신기록으로 당당히 떠오를것이다.

조선의 이 눈부신 개발속도, 대비약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 눈물겨운 헌신과 로고의 결실이며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강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국방과학전사들과 전체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의 축도이다.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오는 력사적인 그날까지 조선의 《화성》은 줄기차게 영웅적인 신기록을 창조할것이다. 《화성》만이 아닌 우리 조선의 힘과 전진속도, 우리 인민의 창조와 투쟁은 력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록에 끝없이 도전할것이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조선에는 앞으로도 영원히 절대적인 기록이란 없다.

본사기자 백성근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

선군의 총대로 더 굳건히 지켜지는 아이들의 밝고 창창한 모습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주체사상탑앞에서—

—대성구역 룡흥2동 130인민반 김호영동무의 가정에서— 김광린 찍음

《싸드》배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

최근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싸드》배치를 완료해야 할 기간까지 정해놓고 그 실행에 나설것을 강박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바야흐로 남조선당국이 이 사실을 부정해나서고있지만 이미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리 만무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싸드》배치와 관련한 이전 《정권》과 지들과의 합의를 뒤집지 말라고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다.

문제는 한때 《싸드》배치의 《재검토》를 떠들며 무슨 큰일이나 칠듯이 놀아대던 현 남조선당국자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민심을 거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은 청와대에서 발전된 박근혜《정권》시기의 내부문건들 가운데 《국정》통단사건과 관련한 자료들은 대부분 언론에 공개하면서도 《싸드》배치와 관련한것들은 《민감한 외교, 안보관련문건》이니 뭐니 하는 구실을 내대면서 공개하지 않고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였다. 이것은 《싸드》배치의 《절차적정당성》을 운운하며 박근혜《정권》시기의 《싸드》배치합의과정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던것과는 판판 다른 태도이다.

알려진데 의하면 그 문건들은 청와대 안보실에서 발전된것들로서 미국의 부추김과 배후조종밑에 《싸드》배치강행을 직접 말아한 김관진역도와 관련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그 문건들이 공개되지 못하게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버린것은 《싸드》배치와 관련한 미국과 박근혜패당의 공모결탁관계가 폭로되고 그로 하여 《싸드》배치에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되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실제로 지금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강박에 떠밀리워 《싸드》배치에 한걸음한걸음 나서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국정운영 5개년계획》이라는데서 《적폐청산》을 언급하면서도 《싸드》배치문제는 슬쩍 빼놓은 사실, 괴뢰국방부를 내세워 《싸드》배치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눅잦힐 심산으로 《싸드》전자파측정놀음에 나섰던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던중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구실로 《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긴급히 소집하고 《싸드》발사대추가배치를 지시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싸드》배치는 박근혜역적패당이 남긴 가장 대표적인 적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적폐청산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떠들고 있는 현 남조선당국이 《싸드》배치강행에 나서고있는것은 초불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용납 못할 배신행위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싸드》철거를 최우선적인 적폐청산과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미국과 그에 아부굴종하는 괴뢰보수패당에 의해 짱그리 짓밟힌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되찾기 위한것으로서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미국의 《싸드》배치강행책동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져다주는것이란 치욕과 불행뿐이다.

《싸드》배치놀음은 남조선을 한갖 식민지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의 지배정책과 세계제패야망의 산물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남조선에 피묻은 군화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이곳을 군사기지화하기 위해 책동하여왔다. 남조선을 대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발판으로 만들고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계책이다. 미국이 《싸드》배치책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것도 바로 그에 따른것이다.

《싸드》배치파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운명이야 어찌되든 지들의 침략적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본성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다.

널리 록로된바이지만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는 남조선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게 된다. 미국과 친미주구들이 《싸드》배치는 《북핵위협》에 대비한 《필수적》인것이라고 광고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기만술책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싸드》의 남조선배치는 《북핵위협》이 아니라 조선반도주변대국들을 겨냥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전개소동의 한 고리라고 까밝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들의 강도적요구를 합리화하기 위해 《싸드》가 《북핵위협》에 대비한 《방어용》이라느니, 《싸드》배치의 《재검토》는 《동맹》의 핵심을 흔드는것이라느니, 《있을수 없는 일》이라느니 하는 실로 터무니없는 망발을 줴치며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였다. 나중에는 《싸드》배치에 드는 비용까지 남조선당국이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

여기에 현 남조선당국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초불민심을 거역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이는것이 숙명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상전의 강박에 굴종하여 《싸드》배치에 깔고나서는것은 접국에속과 죽음의 올가미를 스스로 뒤집어쓰는 천하의 어리석은것이다. 《싸드》배치로 남조선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대국들의 위험천만한 핵대결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제 집안에 재앙단지를 끌어들인 미국에 대해서는 항변 한마디 못하고 주변나라에 보복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애걸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실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남조선당국은 《싸드》배치로 하여 경제보복이 아니라 불벼락을 들씌도 할 말이 없을것이다.

미국이라면 오금을 못쓰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싸드》배치에 주저없이 나서는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싸드》를 우선적인 적폐청산대상으로 정하고 그것을 철거시키기 위해 대중적으로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싸드》철거는 민심의 요구이며 이를 외면하는자들에게는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밖에 차례질것이 없다.

집권하기 전까지만 해도 《싸드》배치문제에 대해 득보다 실이 더 많다, 한 소리는 해야 한다던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에 와서 《싸드》배치합의를 《쉽게 취소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떠벌이고 나중에는 우리를 걸고 《싸드》발사대의 추가배치를 강행한것은 실로 격분을 자아내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으면 이렇게 비굴해지고 머저리가 되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에 있어서 《싸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데도 쓸모없는 고물단지, 싸고돌수록 망신만 당하는 애물단지, 아무리 끼고있어보았댔자 미국상전에게만 리롭고 자신에게는 화만 불러오는 재앙거리로밖에 더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박근혜역적패당처럼 《싸드》배치에 나서는것을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백해무익한 《싸드》배치놀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민심에 역행하는자들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길것이다.

박 철 준

불순한 야망이 깔린 대결각본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국정운영 5개년계획》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대북전략》을 들고나왔다. 총적목표를 《북핵문제해결》과 《북인권문제해결》로 내세운 남조선당국의 《대북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반공화국핵소동과 《인권》모략소동의 강화를 꾀자로 하는 극악한 대결각본이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대북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북핵폐기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가소롭게 놀아대며 《정화체제구축을 위한 로정도》를 작성한다 어쩐다 하고 분주랑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을 제거하고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납 못할 대결망동이다.

남조선당국은 《신베를린선언》에 이어 도발적인 《대북전략》을 꾸며냄으로써 지들의 대결적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남조선집권세력이 《북핵문제해결》과 《북인권문제해결》을 《대북전략》의 총적목표로 정한것은 우리와의 대결을 공공연히 선포한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핵문제의 해결을 북남관계진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북핵폐기합의도출》이니, 《정화체제구축을 위한 로정도》니 하고 떠드는것은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압살을 추구하는 지들의 속심을 스스로 폭로한것이다.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보유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조치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니며 그에 대해 흥정하려드는 자체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핵문제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소동으로 인하여 산생된 문제로서 조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남조선당국으로서는 커기에 코를 들이밀고 이러쿵저러쿵할 체면이 없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의 앞잡이가 되여 주제넘게 《북핵문제해결》을 떠들어댈수록 북남관계가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파국상태에 처하게 될뿐이라는것이 력사의 교훈이다.

우리는 핵문제해결을 전제로 한 북남관계개선은 있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이미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남조선당국자들이 집권기간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시간까지 정해놓고 《북핵폐기》를 운운하고있는것은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 그것이 북남관계개선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바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더우기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현 남조선당국이 괴뢰보수패당이 악랄하게 벌려온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들을 지들의 《대북전략》에 그대로 반영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대북전략》에 토아박은것들이란 《인권재단》설립과 인간쓰레기들에 대한 《지원》따위들로서 전부 미국의 사촉하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상을 흐려놓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을 해치며 《체제통일》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미쳐날뛰여온 리명박, 박근혜역도패거리들의 손때가 짙게 묻은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파괴의 근원인 이런 억지웃은 대결광대극에 종지부를 찍을 대신 그것을 지들의 《대북전략》을 통해 다시금 펼쳐놓으려 하는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그것은 기필코 북남관계에 또 하나의 커다란 장애를 가로지르게 될것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처사야말로 북남대결에 환장해날뛰던 리명박, 박근혜역적패당이 지지른 죄악과 결코 다를바 없는 반통일적망동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들의 《대북전략》에 대해 《정화체제를 함께 준비》하는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광고하고있다. 하지만 그런 서푼짜리 말장난은 통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현 당국의 《대북정책》이 이전 보수《정권》들의 동족대결정책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고 따져묻고있다. 그러면서 그런 모순투성이이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으로써는 과거에 처한 북남관계를 절대로 개선할수 없다고 비난을 퍼붓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초불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처신을 바로해야 할것이다. 대세에 역행하고 민심을 배반하는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온 정 철

히 스 테 리 적 인 광 증

요즘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의 《미싸일위협》에 대해 매일같이 떠들면서 그 무슨 요격훈련이니, 대피훈련이니 하며 북새통을 피워대고있다.

일본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방위성은 탄도미싸일을 요격하는 지대공유도탄 《PAC－3》의 기동전개훈련을 오끼나와현과 미야기현에서 련이어 벌려놓았다. 지난 6월에도 요격미싸일전개훈련계획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한 후 4곳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본반동들은 8월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요격미싸일전개훈련을 진행하려 하고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이런 훈련을 벌리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한편 일본은 올해 3월부터 지방도시들에서 우리 나라의 미싸일에 대비한다는 명목밑에 주민대피훈련을 벌리고있다. 《적의 공격》에서 살아남을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첫 정부적지침이라고 하는 《생존지도서》라는것이 발표되고 긴급대피방법을 선전한다 어쩐다 하며 설쳐대고있다. 우리 나라로부터 일본방향으로 미싸일이 발사되는 경우 시민들의 생명보존방도에 대하여 그 무슨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한다는것이다. 당국자들이 저마끔 나서서 조선의 미싸일이 발사되면 몇분사이에 일본으로 날아오는것만큼 주민들을 시급히 피난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진부한 궤변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말그대로 히스테리적인 광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내외여론은 일본집권세력이 고의적으로 조선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시키고있다고 비난하고있다.

하다면 그들이 왜 이런 병적증세를 드러내고있는가.

일본내부에서는 하락한 지지률을 회복해보려는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용이라는 비판이 울려나오고있다.

옳은 비판이라고 할수 있다.

지금 현 당국에 대한 지지률은 30%계선으로 떨어졌다. 국회선거 다음가는것으로 알려진 도꾜도의회선거에서 자민당은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제1당의 자리를 내놓았다. 아베일당은 내각과 자민당에서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외교실적을 올린다 어쩐다 하며 복닥소동을 피우고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바빠맞은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극대화하여 지들을 반대해나서는 국내 민심을 돌려세워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연한짓이다. 그런 광증을 부려 끼저가는 지들의 정치적잔명을 부지하기에는 저지른 죄과가 너무나 크다.

《기미가요》의 선창으로 집권의 막을 연 현 집권자는 과거 제국시대를 부활시키기 위해 선임자들도 엄두를 내지 못한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왔다. 최근년간 특정비밀보호법, 조직범죄처벌법을 비롯하여 국내진보세력과 언론, 인민들의 자유를 구속, 억압하는 악법들을 적지 않게 개악 및 조작하면서 국내의 파쑈화를 급속도로 다그쳤다. 또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허용하고 안전보장관련법을 개악하여 《자위대》의 해외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제는 현행헌법을 개악하여 전쟁헌법을 조작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재침의 길에 합법적으로 나섬으로써 과거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망상하고있다.

그러나 일본인민은 극악한 파쑈제도, 일제시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지배층의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고있다. 아베일당은 이를 공공연히 무시하고있다.

일본민심은 분노해하고있다. 그 분노가 당국에 대한 지지률의 급격한 하락에서 표현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아무리 떠들어대며 지지률을 회복해보려 해도 일본민심은 그에 속지 않을것이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다른 나라들을 위협공갈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자위와 평화를 위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오랜 기간 우리 인민에게 핵참화를 들씌우기 위해 발악해온 미국의 핵전쟁책동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하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우리 나라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들을 저들의 정치적잔명을 부지하는데 써먹는 고약한 악습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최상의 지위에 오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상전인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의 돌격대로 나서는 어리석은 망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리 현 도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 권리보장이 법적으로 담보된 조선

국 제 사 회 계 가 격 찬

절세위인들의 녀성존중, 녀성중시정치에 떠받들려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력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여가는 조선녀성들의 행복한 모습은 국제사회계의 경탄과 부러움을 자아내고있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녀성들의 존엄과 긍지가 높은 경지에 이른 조선의 현실에 전세계가 주목을 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녀성들의 처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 력사적계기는 조선해방이였다.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에 발포된 남녀평등권법령은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녀성들의 불우한 운명에 종지부를 찍었다.

많은 녀성들이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주권기관들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여 국사를 론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 권리보장이 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라오스잡지 《싸오라오》는 이렇게 전하였다.

항일혁명의 나날 조선녀성운동의 전통을 마련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1945년 11월 18일 조선민주녀성동맹을 결성하신데 이어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포하시여 녀성들이 보람찬 삶을 꽃피울수 있게 하시였다.

김정일평등도자께서는 녀성들을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내세우며 녀성일군들을 더 많이 키울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녀성문제에 관한 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주제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부위원장은 조선에서는 녀성들이 사회적우대정책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생활하고있다. 그들은 혁명투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으며 국제체육경기들에서 신화들을 창조하여 나라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있다고 말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지난 한세기동안 조선녀성들의 운명과 함께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 봉건제도와 일제강점하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울밑에 시들어가는 봉선화의 처량한 모습에 비추어보며 눈물의 노래를 불렀던 조선녀성들이 위대한 수령들을 모시여 혁명의 년대기들마다에 노래와 함께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며 시대의 꽃, 나라의 꽃으로 떠받들리워왔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여온 조선녀성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애국의 노래를 더 힘차게 부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서고있다.

빼루인민민주단결 리마시지부 녀성대표는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중의 하나는 녀성들에게 평등하고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는 참다운 정치를 실시하신것이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는 조선녀성들이 정말 부럽다고 진정을 토로하였으며 국제민주녀성련맹 위원장은 지난날 온갖 천대와 멸시의 대상으로 버림받던 조선녀성들은 오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랑스럽고 힘있는 존재로 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세네갈라지오방송은 조선에서 녀성들은 별도의 대우를 받고있다, 국가가 어려 어린이들 가진 녀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단축해주고 훌륭한 보육기지들과 아동병원 등을 통하여 그들이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녀성중시정책의 우월성을 소개하였다.

총 련 중 앙 상 임 위 원 회 의 장 이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일행을 만났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19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을 방문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파몬 히메네스 로페스와 부인, 사무국장 오가미 쟁이찌를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서충언 국제통일국장이 어기에 참가하였다.

남조선농민들 당국에 피해보상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농민회총련맹이 24일 청와대주변에서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당국에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는 지난 5월말 우박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지역의 농민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쌀시장까지 개방됨으로써 쌀값이 폭락하고 농산물가격이 낮아져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는 때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더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게 되였다고 울분을 터치였다.

당국이 자연재해로 피해입은 농가들이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농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보안법》폐지와 량심수석방을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27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보안법》철폐와 량심수석방을 요구하는 1 132차 목요집회를 가지였다.

참가자들은 8.15를 계기로 량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당국을 규탄하였다.

량심수석방의 절박성을 알리기 위해 매일 광화문앞에서 청와대에로 시위행진을 벌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있다고 그들은 성토하였다.

월간국제정세개관

력사의 반동들은 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한다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력사의 반동들은 평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위해 발악하고있다. 하지만 그로 하여 그들은 고립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다. 이달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사태발전은 그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지난 4일 우리 나라에서 새로 연구개발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이 용암같은 불줄기를 내뿜으며 기운차게 날아올라 완전성공의 비행운을 새기였다. 28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가 진행되여 또다시 대성공하는 사변적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최대사거리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로써 우리 공화국은 미본토의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 명실상부한 핵강국이라는것을 온 세계에 보여주었다.

미국은 완전히 얼혼이 나갔다. 미집권층과 정책립안자들속에서는 절망의 비명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왔다. 세계 여러 나라 고위관리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은 트럼프에게 남은것은 핵을 보유한 조선과 어떻게 공존하겠는가 하는것을 놓고 모색하는것뿐이라고, 그것만이 미국을 살릴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미숙한 트럼프는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국제적인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보려고 발악하였는가 하면 감히 군사적공격에 대하여 떠들어댔다. 이것은 주제조선의 불패의 국력에 덴접한자들의 한갖 허세, 가소로운 객기였다. 트럼프행정부가 무분별하게 날뛰는것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 강위력한 주체탄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분수없이 날뛰는 미국을 종국적멸망에로 몰아갈 때만이 이 행성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이달에 진행된 20개국수뇌자회의는 미국이 달로 고립되여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이미 파리협정을 미국에 해를 주는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헐뜯으며 일방적인 탈퇴를 선포한 트럼프는 이번 수뇌자회의에서 어떻게 하나 파리협정의 리행을 재협상의 방법으로 회피해보려고 끈질기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로 차례진것은 랭대뿐이였으며 결국 회의는 19대 1의 대립구도속에서 진행되였다. 19개 참가국 수뇌자들은 모두 파리협정체결을 되돌려세울수 없는 국제협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없이도 협정을 무조건 리행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완전한 고립》으로 비쳐진 이번 회의결과를 놓고 미국의 지위가 확고히 내려막길에 들어서고있다고 평하였다.

트럼프는 국제적으로뿐아니라 국내에서까지 몰려우고 따돌림을 받았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론들이 계속 파고든다고 하여 제통에 어울리지 않게 얼굴에 CNN이라는 글자를 새긴 상대방을 프로레스링경기장박에서 때려눕히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가 하면 집권 6개월간 거짓말을 밥먹듯 해온것으로 하여 언론으로부터 《뻐노끼오대통령》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트럼프의 망나니적기질과 패권주의적사고방식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받았다. 미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탄핵시위를 벌렸다. 미국은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 빠져들었으며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고 파멸의 길로 줄달음쳤다.

이달에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에 편승하여 해외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다.

일본집권자가 해외를 싸다니면서 여중이떠중이들과 련이어 회담을 벌려놓고 국제사회가 조선의 심각한 핵 및 미싸일개발도전에 직면해있다느니, 조선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최대한의 압력을 가할 때이며 조선이 외부와 불자, 기술, 금융거래를 할수 없게 모든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망발을 줴쳐댔다. 국내에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주민대피훈련을 벌림나게 벌렸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인위적인 공포심과 적대감을 고취시켜 군국주의부활에 유리한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망동이였다.

일본반동지배층은 자국내 민심을 잃었다. 국회선거 다음가는것으로 알려져있는 도꾜도의회선거에서 자민당이 대참패를 당하였다. 이것은 일본당국과 자민당이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에 광분하면서 민심을 한사코 거역해나선 쓰디쓴 대가였다.

이달에 중동평화파괴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저들이 강점한 골란고원지역에 두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진것을 놓고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수리아정부군 포진지를 타격하는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이것도 성차지 않아 강점한 수리아의 골란고원에서 다음해 10월에 《지방리사회》선거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팔레스티나인들을 비롯한 이슬람교도들의 성지인 동부꾸드스의 알 아크사사원을 폐쇄하는 망동을 부렸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령토강탈자, 평화파괴자로서의 몰골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놓았다. 많은 나라들이 중동정세악화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책동에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해나섰다.

평화파괴자, 지배주의자들은 세계곳곳에서 규탄배격을 받았다.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은 고립과 파멸을 면치 못한다. 이것이 이달 국제정세흐름의 총화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이란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할 립장 표명

이란대통령 하싼 루하니가 26일 내각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이란인민이 지난 40년간 미국으로부터 많은 압력과 제재를 받아왔다고 하면서 이란은 그러한 직대행위에 습관되여있으며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들은 직들에게 저항하고 맞서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다고 강조하고 그는 자기 나라가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날 이란외무성 부상은 대이란제재조치는 미국의 공약에 배치된다고 밝히고 그것이 핵합의의 리행에 역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 회 적 진 보 와 발 전 을 위 하 여

관광업발전목표

쿠바에서 올해에 47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받아들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16.5% 더 많은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이 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300만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25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농촌전기화 추진

인디아정부가 모든 농촌마을들에 대한 전기화를 실현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정부가 밝힌데 의하면 전기화가 실현되지 못한 1만 8 452개의 농촌마을중 올해 6월 30일현재 1만 3 872개 마을의 전기화가 실현되였다.

새 국제비행장 준공

케냐아의 동북부지역에서 새 국제비행장이 건설되여 23일 준공하였다.

이 비행장을 통과하는 려객수는 년간 12만 5 000명에 달할것이라고 한다.

현대적으로 건설된 비행장은 앞으로 나라의 경제 및 관광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남아프리카의 도시

황화물처리성과

아랍추장국련방의 두바이항에서 올해 상반년에 화물처리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 증대되였다.

25일 항운영당국이 밝혔다.

어린이건강보호사업 강화

에티오피아에서 어린이건강보호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살미만 어린이들속에서 영양실조증에 걸린 비률이 2000년에 비해 20%나 감소되였다 한다. 20일 유엔아동기금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ㄱ-71120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